

건협강원도회, 공공기관 주관 협력사업 참여 확대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가 협회 유관기관 협력사업은 물론 도내 공공기관 주관 협력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18일 건협 강원도회에 따르면 오인철 건협 강원도회 회장(사진)은 강원경제단체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강원경제단체연합회는 강원도 경제관련 단체의 총협의체로 건설, 제조, 유통, 관광, 농업, 서비스 등의 사업자 단체로 구성돼 있다.

오 회장은 지난 4월26일 강원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강원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과 예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오 회장은 강원도 남북건설교통협력협의회 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남북건설교통협력협의회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비하고 통일 사회간접자본(SOC)을 선점

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남북 건설교통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해 강원도 주도의 남북 건설교통협력사업 기반의 사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오 회장은 강원지방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동시에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이사직도 수행하고 있다. 또 강원건설단체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건설환경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는 강원도 내 건설 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 증진과 친목 도모를 위해 결성됐다.

강원도 건협이 협회 관련 사업은 물론 일반 협단체 활동도 강화하는 것과 관련, 도 건설업계 평가도 긍정적이다. 강경연과 남북건설교통협 회장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강원도 지역경제 정책 수립 등 현안에 건설업계가 주축이 돼 진행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임성엽기자 starleaf@